

공손 표현에 대한 번역 전략 — 호칭어를 사용한 대화체 문장을 중심으로 —

이 속 자
(부산대)

1. 서론

공손(Politeness)은 1973년 레이코프(Lakoff)에 의해 처음 언어학계에 등장 (허상희 2009: 198)한 이후 특히 1980년대에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다양한 공손이론이 나왔으며 현재에도 연구가 활발한 분야이다.

공손 이론은 그라이스(Grice)의 협력원칙과 그것의 4대 격률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을 보충한다(Leech 1983). 즉 공손 이론은 어휘적, 문법적, 문장구조적 차원으로 단순히 설명하기 힘든 많은 사회언어학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들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 장면, 대화 상황이나 맥락 등을 고려한 이론이다.

공손이 보편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나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적, 관습적, 제도적 영향으로 인해 공손을 표현하는 방법은 약간 다를 수 있으며 실제

로 다른 편이다. 예를 들어 영어는 공손 표현이 문법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법적 언어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어휘의 격식성, 호칭 표현, 간접말화 행위, 의문형, 주어 선택 등의 언어 장치를 통해 공손을 표현한다. 이에 반해 한국어는 특별한 문법적 언어 장치인 경어법을 통해 보통 공손을 표현하는데, 경어법이 공손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이정복 2011a: 36). 하지만 영어든 한국어든 공손을 구현하기 위해 공손에 관계하는 언어적 요소를 사용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공손을 표현한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언어 외적 요소들도 공손 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발화가 공손 표현이 되려면 공손에 관계하는 언어적 요소 외에도 공손에 관계하는 언어외적 요소인 화용론적 조건, 즉 발화 시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의 장면, 분위기 등의 상황적 맥락도 함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손 표현에 대해, 영어 원천텍스트(Source Text)의 공손 표현이 한국어 목표텍스트(Target Text)에서도 등가를 이루는지 한국어 경어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정호정 2001, 이은숙 2008)와, 영어와 한국어의 공손과 불공손 표현에 대한 연구(이원국 2005, 박미실 2008) 및 영어 화행에 나타난 공손 표현 연구(이정주 2002, 신지혜 2012) 등의 여러 논문이 있지만 영어에서 공손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태인 호칭어를 사용한 대화체 문장에 대한 공손 표현과 그러한 공손 표현이 번역본에 어떤 번역전략으로 구현되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로 된 하나의 문학작품과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 번역본을 선정하여 i) 호칭어를 사용한 원작의 대화체 문장이 공손을 표현하고 있는지와, ii) 공손을 표현한 원문이 번역본에서 어떤 번역전략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지, 또 iii) 그러한 번역전략의 결과가 인물 파악이나 인물들 간의 관계 파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원작에 대한 충실성과 어휘적, 문법적, 문장구조적 차원이 아닌 화용론적 차원의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문학작품은 영어로 된 제임스 조이스의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이고 그에 대응하는 번역본은 한국어로 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다. 선정 이유는 작품 속에 호칭어를 사용한 대화체 문장이 대체로 많은 편(약 285 문장)이며, 이들 중 호칭어를 사용하여 공손을 표현한 대화체 문장도 많고, 또 그에 상응하는 번역본의 문장이 어떤 번역전략을 사용하여 공

손을 구현하는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원작과 번역본 텍스트를 비교분석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공손의 정의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unabridged*는 공손을 타인을 진심으로 생각하거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 기지, 경의, 정중함, 은혜 등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올바른 사회적 어법으로 정의하고, *Oxford Dictionary of English*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위를 하거나 보여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공손을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 바름으로 정의하고, 『새우리말큰사전』은 어려워하는 기색이 있고 겸손함으로 정의한다. 위의 정의들로부터 공손은 배려의 형태이고, 경의는 존경의 형태이며, 공손에 경의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2.2 공손 이론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공손 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로는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을 들 수 있다.

브라운과 레빈슨(1987)의 공손 이론의 주요 개념은 고프만(Goffman, 1967)의 ‘체면(face)’인데, 이 체면은 문화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의사소통 당사자들이 지니고 싶어 하는 공적인 자아상(public self-image), 즉 개인의 자존심(individual self-image)을 말한다. 고프만에 따르면 사람들은 체면에 대한 상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의 체면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 브라운과 레빈슨(1987)은 이를 발전시켜 체면을 적극적 체면(PF: Positive Face)과 소극적 체면(NF: Negative Face)으로 구분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적극적 체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들과 잘 지내며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를 말하

고, 소극적 체면은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타인으로부터 침해나 방해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하지만 체면은 쉽게 손상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고 보면서, 특히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그들은 체면 손상 행위(FTA: Face Threatening Acts)라고 부른다.

브라운과 레빈슨(1987)은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 즉 FTA를 완화하기 위해 공손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그들은 FTA의 크기(W: Weightness)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D: Distance)와 청자가 화자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 힘의 크기(P: Power) 및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담의 절대적 크기(R: Ranking)의 세 가지 변수의 합으로 보았다. 즉, 다음과 같은 공식을 규정했다.

$$W_x = D(S, H) + P(H, S) + R_x.$$

여기서 S는 화자(Speaker), H는 청자(Hearer)를 나타내며, 이들 세 가지 변수의 요소 합이 크면 클수록 FTA의 크기는 커지는데,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공손한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며, 반대로 합이 작아질수록 공손한 표현을 덜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브라운과 레빈슨(1987)은 위의 공식을 제시하면서 ‘특정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특정 FTA’가 체면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그만큼 위의 값이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상대적일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특정 FTA가 체면의식에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도 언어문화권별로 다를 수 있으며, 때에 따라 FTA 값이 작더라도 공손 표현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3 공손과 경어

영어의 공손에는 문법상 경어법이라고 부를 만한 문법범주가 없지만 호칭이나 요청의 표현 및 부사적 경어 표현 등의 언어장치를 통해 공손을 표현한다(이은숙 2008: 140). 하지만 한국어의 공손에는 문법상 경어법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경어법을 통해 공손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손과 경어를 동일시여기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둘은 서로 다르다.

한국어 경어법은 대우법, 존대법, 존비법 등으로도 불린다. 이정복(2012b: 16)은 경어법을 다른 사람을 높여 대우하기 위한 언어 형식들의 사용방식과 체계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서정수(2006)는 경어법을 화자가 청자나 화제의 인물을 두고 높낮이 관계, 친하거나 먼 관계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상황에 알맞은 말씨를 골라 쓰는 언어행위로서, 그런 말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 관계에는 높낮이 관계, 친소 관계, 힘의 관계, 이해관계 따위가 있다고 말한다.

경어법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정수의 분류법을 따르고자 한다. 서정수(2006)는 경어법(대우법)을 그 대상에 따라 청자 대우, 주체 대우, 객체 대우로 나누면서, 청자 대우는 화자가 청자를 상대로 존대하거나 비존대하는 것을 말하고, 주체 대우는 화자가 문장의 주어나 주체의 자리에 나타나는 인물을 존대 또는 비존대하는 것을 말하며, 객체 대우는 주체와 대비되는 객체 인물을 존대하거나 비존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자대우만 설명한다. 그는 또한 현대의 청자 대우 양식과 등급을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그가 설명한 청자대우의 양식과 등급은 <표 1>과 <표 2>로 나타난다.

<표 1> 경어법의 격식체 (서정수 2006: 995)

등급		서술법	약속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존 대	아주 높임 (합쇼체)	브니다 습니다 웁니다 니이다 올시다	오리다	브니까 습니까 웁니까	십시오 소서 웁소서 시지요	십시다
	예사 높임 (하오체)	오 소 우 구려	리다	오 소 우 구려	오 소 우	오 브시다
비 존 대	예사 낮춤 (하게체)	네 르세	므세	는가 느가	게 게나	
	아주 낮춤 (해라체)	(느)다 (느)구나	마	니 (느)냐 랴	어랴 려무나 렴	

〈표2〉 경어법의 비격식체 (서정수 2006: 996)

등급		서술법	약속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존 대	두루 높임 (해요체)	어요 지요 (는)군요 요 르걸요	르께요	어요 지요 (는)군요 르까요	어요 지요	어요 지요
비 존 대	두루 낮춤 (해체)	어 지 군	르께 지	어 지 냐	어 지	어 지

한국어에서는 경어법을 통해 공손이나 경어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 (1)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손님에게)
판매팀 : 안녕하세요.
- (2) (학교에서 돌아와 배고파하는 딸아이에게)
어머니 : 밥 먹어라.
- (3) (평소에는 직원에게 해라체를 사용하는 사장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출근한 여직원에게 화를 내며)
사장 : 일하러 가는데 아이를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허상희 2009: 202)

(1)의 경우, 화자는 경어법 청자대우의 격식체 존대 아주 높임(합쇼체)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높임말로 존경과 공손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2)는 화자가 경어법 청자대우의 격식체 비존대 아주 낮춤(해라체)을 사용하여 딸아이에게 낮은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 청자를 배려하여 한 말화이기 때문에 경어는 아니지만 공손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의 경우, 화자가 경어법 청자대우의 격식체 존대 아주 높임(합쇼체)을 사용하여 높임말로 경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청자에게 공손을 표현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발화

의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어법을 사용한다고 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꼭 공손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공손과 경어가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영어에는 한국어처럼 경어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공손과 경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장치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언어 장치를 통해 공손과 경어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어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모두 공손을 표현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살펴보자.

(4)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식사를 권하면서)

며느리 : Have a meal, please.

(5) (시끄럽게 떠드는 손님에게)

직원 : Get out, please.

(4)와 (5)의 경우는, 영어에서 공손과 경어를 표현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인 ‘please’라는 단어를 모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는 공손과 경어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지만 (5)는 경어는 표현했지만 공손을 표현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유는 (5)에서 사용된 ‘get out’ 때문인데, 이 말 속에 이미 부정적 내용의 발화 의도가 내재하여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기 때문에 ‘please’를 사용한다 해도 공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영어에서도 공손이나 경어를 표현하는 언어 장치를 사용한다 해도 때에 따라서는 경어는 표현해도 공손은 표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어에서도 한국어처럼 공손과 경어가 항상 일치하지 않음을 살필 수 있다.

2.4 공손과 호칭어

호칭어란 화자가 대화의 상대를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어구 또는 표현들을 말한다(왕한석 외 2005: 17). 호칭어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름, 2인칭 대명사, 친족어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이다(왕한석 외 2005: 17). 또한 호칭어는 언어마다 해당 언어에 알맞은 고유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호칭어 체계는 해당 언어의 특유한 문법적, 의미적 특성들과 깊은 연관성을 가

진다(손춘섭 2010: 96).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유형 분류는 한국어 경어법처럼 학자마다 다른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손춘섭의 호칭어 유형 분류를 설명하도록 한다. 손춘섭은 한국어 호칭어를 크게 일반 호칭어와 친족 호칭어로 나눈다. 친족 호칭어는 친족들 사이에서 친족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친족어로 된 호칭어를 말하고, 일반 호칭어는 친족 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반 호칭어를 가리킨다(손춘섭 2010: 101). 그는 일반 호칭어를 다시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명사+접사/의존명사’형과 ‘명사’형 및 ‘대명사’형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명사+접사/의존명사’형은 다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명사+-님’형, ‘명사+-씨’형, ‘명사+-군’/‘양’형, ‘명사(지명)+대’형 및 ‘명사(자명)+-네’형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님’형만 설명하고자 한다.

손춘섭에 따르면 ‘명사+-님’형 호칭어는 보통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 (6) 김영희님, 영희님, *김님
- (7) 김영희 선생님, 김 선생님, 영희 선생님, 김영희 어머니님,
영희 어머니님, 김영희 형님, 영희 형님, “김 형님, *김 어머니님
- (8) 선생님, 형님, 어머니님

위의 예는 ‘명사+-님’형의 세 가지 형태로, (6)의 경우는 상대방의 성명이나 이름에 상대 높임 대우체 접미사 ‘-님’을 붙여 부르는 형태이고, (7)의 경우는 상대방의 성명이나 성이나 이름에 직함/친족어를 붙인 다음 다시 ‘-님’을 붙여 부르는 형태이며, (8)의 경우는 직함/친족어에 바로 ‘-님’을 붙여 부르는 형태이다. 이들 중 “처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통 (6)과 (8)의 경우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대등 관계일 때 사용하며, (7)의 경우는 화자가 뒷사람인 청자를 부를 때나 서로 대등관계일 때 사용하는 호칭어이다(손춘섭 2010: 113).

일반적으로 ‘명사+-님’형의 호칭어는 경어법에서 청자 대우 등급이 높은 존대 화계와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9) 김영희님, 학교에 (오십시오./오시지요./오세요./*오게./*와./*와라.)
- (10) 김영희 선생님, 학교에 (오십시오./오시지요./오세요./*오게./*와./*와라.)
- (11) 선생님, 학교에 (오십시오./오시지요./오세요./*오게./*와./*와라.)
- (12) 형님, 학교에 (오십시오./오시지요./오세요./*오게./*와./*와라.)
- (13) 영희야, 학교 (*오십시오./*오시지요./*오세요./오게./와./와라.)

위의 예를 통해, ‘명사+·님’형의 호칭어는 경어법 청자 대우의 격식체 비존대의 예사 낮춤(하계체)와 아주 낮춤(해라체) 및 비격식체 비존대의 두루 낮춤(해체)과 함께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명사+·님’형 호칭어를 통해 화자는 청자에게 최대의 공손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의 호칭어도 한국어 호칭어처럼 유형 분류가 학자마다 약간씩 다른 편이다. 브라운과 포드(Brown & Ford 1961)는 영어의 호칭법을 크게 세 가지, 즉 i) 상호 TLN(mutual Title+Last Name), ii) 비대칭 TLN-FN(asymmetrical TLN-FN), iii) 상호 FN(mutual First Name)의 형태로 분류하면서 이 세 가지 유형은 친분관계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상호 TLN은 화자와 청자가 서로 상대방을 사회적인 지위에 성을 붙여 부르는 호칭법으로, 예를 들면 Professor John, Dr. Smith 같은 호칭으로 상대방을 부르는 경우이다. 비대칭 TLN-FN은 손윗사람은 아랫사람을 FN, 즉 이름으로 부르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TLN으로 부르는 비대칭적인 호칭법을 말한다. 그리고 상호 FN은 똑같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법을 말한다. 하지만 브라운과 포드는 처음에는 상대방을 TLN으로 부르기 시작하다가 10분 정도의 대화 후 보통 서로가 FN, 즉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 영어의 경우 순위서열인 경우 친족 호칭을 붙일 수 있지만 사촌끼리는 ‘사촌(cousin)’이라 부르지 않고 FN을 사용한다. 형제, 자매간에 나이차가 있더라도 FN을 쓰는 것이 보통이며 부모, 삼촌, 고모 등도 FN을 사용하는 경향이 보편적이다. 이것은 가족과 친족 구성원들을 종적 관계로 보지 않고 수평적 관계로 인식하는 의식구조의 확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된다.

영어든 한국어든 호칭어를 사용하여 보통 상대방에 대한 공손을 표현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14) (평소에는 직원에게 해라체를 사용하는 사장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출근한 여직원에게 화를 내며)

사장 : 오달현씨! 일하러 가는데 아이를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허상희 2009: 202)

(15) (백인 경찰이 길에서 만난 흑인 의사 뿌생(Poussaint)에게)

백인 경찰 : What's your name, boy?

(뿌생1967: 52, Baker 1992: 243)

위의 예에서, (14)의 경우는 비록 화자가 존칭 호칭어 ‘씨’와 경어법 청자대
우의 격식체 존대 아주 높임(합쇼체)을 사용했지만 맥락상 청자의 체면을 오히
려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므로 발화가 공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15)
의 경우도 청자가 성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의도적으로 청자를 무시하
기 위해 남자 아이를 부를 때 사용하는 ‘boy’라는 호칭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체면을 직접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공손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발화가 공손 표현이 되려면 문법적 조건 외에도 화용론적 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법적 조건이란 공손법에 관계하는 언어적 요소
로서 높임표현을 포함한 경어법 등을 말하는 것이고, 화용론적 조건은 공손법
에 관계하는 언어 외적 요소로서 문법적 조건 외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의
장면 및 분위기 등의 상황적 맥락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손 표현은 화자가 말하
는 문장 구조와 함께 사회적, 심리적 거리나 발화 장면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 텍스트 분석

3.1 텍스트 선정과 선정 이유

텍스트 분석을 위해 선정된 원작은 영어로 된 제임스 조이스의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이고 그에 대응하는 번역본은 한국어로 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다. 현재 한국어 번역본은 약 20종으로 아래의 <표3>과 같다. 이들 중 3종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하는데, 바로 민음사와 시공사와 문예출판사의 번역본들이다. 선정 이유는 (물론 다른 출판사의 번역가들도 그러하겠지만) 번역가 모두 영문학전공학자이자 오랫동안 문학전문번역가로 활동하여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표3> 현존하는 한국어판 『젊은 예술가의 초상』 번역본들 (출판년도 순)

번호	출판사	옮긴이	출판년도	비고
1	민음사	이상옥	2014	2001년 초판 1쇄, 2014년 초판 43쇄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나영균	2013	1995년 초판, 2013년 개정판
3	열린책들	성은애	2013	2011년 초판 1쇄, 2013년 초판 3쇄
4	시공사	장경렬	2012	초판 1쇄
5	느낌이있는책	강미경	2012	초판 1쇄
6	채우리	박성문	2012	『만화 젊은 예술가의 초상』
7	신원출판사	신현규	2012	『중학생이 보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
8	문예출판사	여석기	2011	2004년 초판, 2011년 2판 초판 6쇄
9	동서문화사	김성숙	2011	1판 1쇄
10	신원문화사	신현규	2010	
11	동인	홍덕선	2009	『조이스문학의 강의 - 젊은 예술가의 초상』
12	다락원	이인기	2007	논설을 위한 청소년 필독서. 1쇄
13	한신문화사	박진훈	2000	
14	범우사	김종건	1999	초판
15	문학과지성사	홍덕선	1997	1판 1쇄
16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17	홍신문화사	정성국	1995	1994년 1판 1쇄, 1995년 1판 2쇄
18	호암	박형준	1994	
19	학원사	김종건	1994	
20	길한문화사	권용호	1983	

3.2 텍스트 사례 분석

<사례1>

아래의 대화는 성탄절 축하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주인공의 아버지 디덜러

스 씨가 돌리어(D'Olier) 거리의 던(Dunn) 가게에서 1기니나 되는 큰돈을 들여 칠면조를 사는 장면에서 가게주인이 칠면조가 상품품임을 보여주기 위해 몇 번이나 칠면조 가슴뼈를 눌러 보인 후 손님 디덜러스 씨에게 하는 발화이다.

- Take that one, sir. That's the real Ally Daly. (원서:39)
- 『그걸 가져가세요. 정말이지 그건 최고급품입니다.』 (민음사:46)
- “그걸로 하세요. 특상품입니다.” (문예출판사:48)
- “손님, 그걸로 가져가세요. 그거 진짜로 물건 중 물건입니다.” (시공사:52)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과 번역본의 분석을 아래처럼 표로 정리한다.

〈표4〉 사례1의 원문 분석

분석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 : 가게주인, 청자: 손님 · 사회적 거리감(D) : 화자와 청자의 친분은 없거나 거의 없음 · 청자의 힘 (P) : 화자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큼 · 화자의 부담감(R) : 매우 강함 (∵ 물건을 꼭 팔고 싶음) ⇒ W의 크기 :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맥락 : 화자는 비싼 칠면조 고기를 청자에게 꼭 팔고 싶음 ∴ 화자는 청자에게 공손한 표현을 해야만 목적 달성
공손 표현 여부	화자 : 영어의 극존칭 호칭어 sir을 사용하여 공손을 표현
인물 파악	저자세로 공손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는 가게 주인의 성격과 태도를 상상할 수 있음

〈표5〉 사례1의 번역본들 분석

	민음사, 문예출판사	시공사
화자와 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 : 가게 주인, 청자 : 손님 · 사회적 관계 : 가게주인과 손님 · 힘 관계 : 청자가 훨씬 더 큼 · 맥락 : 발화전과 발화 내용으로 볼 때 화자는 청자에게 칠면조 고기를 꼭 팔고 싶음 	
번역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어법의 적용 : 비격식체 두루높임(해요체)와 격식체 존대 아주높임(합쇼체)을 사용 · 호칭어 sir : 번역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칭어 sir : 상대 높임 대우체

	(경어법에서 선택한 존댓말로도 공손표현이 충분하다고 판단) ∴ 호칭어 번역 생략+경어법 적용 + 맥락 고려	접미사 ‘-님’을 붙여 ‘손님’이라는 호칭어로 번역 ∴ 호칭어를 호칭어로 번역+ 경어법 적용+ 맥락 고려
공손표현여부	원문의 공손 표현 구현	
인물 파악	원문과 비슷한 인물 파악을 제공	

<사례 2>

다음은 주인공 어린 디덜러스가 첫 크리스마스 휴가를 집에서 보낸 뒤 돌아온 클롱고우스 우드 칼리지에서 일어난 일의 한 부분이다. 운동장에서 모르는 아이랑 우연히 부딪쳐 안경이 깨어진 디덜러스는 집에서 안경을 새로 보내줄 때까지 수업시간에 글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를 받는다. 하지만 돌란 신부는 피를 부린다고 체벌을 가한 뒤 매일 들러 그때에도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체벌을 가하겠다고 말한다.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부당한 처벌에 대해 호소하라는 친구들의 권유에 갈등하던 디덜러스는 마침내 점심식사 후 교장선생님인 콘미 신부를 찾아가는다. 교장실에 들어간 디덜러스는 책상에 앉아 해골을 바라보고 있는 다정한 모습의 교장선생님을 보게 된다. 다음은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든 교장이 어린 디덜러스를 보며 하는 첫 발화이다.

- Well, my little man, said the rector, what is it? (원서: 60)
- 『이거, 어린 학생이군』교장이 말했다. 『무슨 일이나?』 (민음사:87)
- “응, 너냐.” 교장 선생님은 말했다. “무슨 일이지?” (문예출판사:97)
- “어이구, 이거 어린 학생 방문객이로군. 무슨 일로 왔지?” (시공사:101)
- 교장 선생님이 물었다.

<표6> 사례2의 원문 분석

<p>분석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 : 교장, 청자: 저학년 초등학생 · 사회적 거리감(D) : 거리감 큼(화자와 청자 : 간접 친분 관계) · 청자의 힘 (P) : 화자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약함 · 화자의 부담감(R) : 상황을 모르므로 없거나 아주 약함 ⇒ W의 크기 : 작거나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음 · 맥락 :
---------------------------------------	---

	<p>1) 발화 전의 묘사설명을 통해 교장이 다정한 분임을 암</p> <p>2) 교장이 어린 학생의 방문이 반갑지 않거나 귀찮으면 바로 “무슨 일이나?(what is it?)”라고 물을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 학생은 권위에 눌려 자신의 방문목적 밝히지 못할 수도 있음</p> <p>3) 교장은 뜻밖의 어린 학생의 방문에 놀라면서도(“well”) 호칭어를 사용한 후 방문 목적을 물음 ⇒ 호칭어 사용으로 상대방을 반기는 모습과 함께 학생이 방문목적 말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배려하는 인자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음 ∴ W의 크기는 작지만 맥락상 교장은 호칭어 사용을 통해 어린 초등학생을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p>
공손 표현 여부	호칭어 사용으로 청자를 부드럽게 대하면서 공손 표현을 구현
인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 학생에 대한 자애로운 성품과 태도를 지닌다고 상상 · 화자와 청자의 관계 : 간접적 친분관계를 상상할 수 있음

〈표7〉 사례2의 번역본들 분석

	민음사, 시공사	문예출판사
화자와 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 관계 : 차이가 많음 · 사회적 관계 : 교장선생님과 어린 초등학생 · 힘 관계 : 화자가 훨씬 더 큼 	
번역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어법의 비격식체 비존대 두루 낮춤(해체)를 사용 · well: 놀람이나 반가움의 뜻으로 ‘이거’, ‘어이구’로 각각 번역 · 호칭어 my little man: 서술어적으로 번역 · 발화 맥락: 바로 방문목적 묻지 않고 놀라거나 반가움의 부사어와 함께 호칭어를 서술어적으로 표현한 후 찾아온 이유를 물은 것은 원문처럼 청자를 고려한 배려로 볼 수 있음 ∴ 호칭어를 서술어적으로 번역 + 경어법 적용 + 맥락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ll: 인식 또는 상대를 잘 알고 있다는 함축의미의 “응”으로 번역 · 호칭어 my little man: “너냐”로 서술어적으로 번역 → ‘너’는 청자가 손아랫사람이나 친한 사람일 때 사용함. 여기서 “응”과 호응하여 친한 사이로 파악 가능함. · 화용론적 차원의 번역이 아닌 문장구조적 차원의 번역 ∴ 호칭어를 서술어적으로 번역+ 경어법 적용+맥락 무시

공손 표현 여부	원문의 공손 표현을 구현	
인물 파악	원문과 비슷한 인물 파악 제공 (화자와 청자의 간접적 친분관계)	원문과 달리 화자와 청자 간의 직접적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 가능성 제시

<사례3>

다음은 교장실에 들어간 디덜러스에게 교장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묻자 이에 목이 메는 것을 꼭 참으며 말하는 어린 디덜러스의 발화 내용이다.

- I broke my glasses, sir. (원서:60)
- 『전, 안경을 깼다구요, 교장선생님』 (민음사:87)
- “저, 안경을 부셨습니다.” (문예출판사:97)
- “교장선생님, 제 안경이 망가졌습니다.” (시공사:101)

<표8> 사례3의 원문 분석

분석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 : 어린 초등학교생, 청자: 교장선생님 · 사회적 거리감(D) : 거리감 큼 · 청자의 힘 (P) : 화자보다 아주 큼 · 화자의 부담감(R) : 아주 강함 ⇒ W의 크기 : 매우 크거나 크다고 봄 · 맥락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초등학교생 신분 2) 화자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제일 힘이 강하다고 믿음 3) 수업시간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교장선생님께 고하려 함 4) 화자는 교장을 자신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 공손을 표현 ∴ 화자는 극존칭 호칭어 sir 사용 : 청자에게 존경과 공손 표현
공손 표현 여부	극존칭 호칭어 sir 사용과 맥락 상 청자에게 공손을 표현
인물 파악	공손하고 어리지만 권위에 억눌리지 않고 힘들지만 당차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영특한 디덜러스의 성격과 태도를 상상할 수 있음

〈표9〉 사례3의 번역본들 분석

	민음사, 시공사	문예출판사
화자와 청자	· 화자 : 어린 초등학교생, 청자 : 교장 선생님 · 나이 관계 : 차이가 많음 · 사회적 관계 : 교장선생님과 어린 초등학교생 · 힘 관계 : 청자가 훨씬 더 큼	
번역 전략	· 민음사: 경어법의 비격식체 존재 두루 높임(해요체) 사용 · 시공사: 경어법의 격식체 존재 아주 높임(합쇼체) 사용	· 경어법의 격식체 존재 아주 높임(합쇼체) 사용
	· 원문의 “I”: 맥락을 고려하여 ‘나’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인 인칭대명사 ‘저’에서, · 민음사: ‘저’에 보조사 ‘나’이 붙은 형태로 번역. “저는”의 구어적 표현인 “전”으로 번역 · 시공사: 관형격 조사 ‘의’를 붙여 준말형태인 “제”로 번역 · sir: 상대 높임 대우체 접미사 ‘-님’을 붙여 호칭어로 번역 ∴ 호칭어를 호칭어로 번역+경어법 적용+맥락 고려	· “저”와 코머(.)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번역 · 호칭어 sir: 번역 생략 (경어법 적용과 인칭대명사 “저”의 사용만으로도 맥락상 충분히 공손을 표현하기 때문) ∴ 호칭어 번역 생략+경어법 적용+맥락 고려
공손 표현 여부	원문의 공손 표현을 구현	
인물 파악	원문과 비슷한 인물 파악 제공	

<사례4>

다음은 어린 디털러스가 교장실을 찾아가 교장선생님께 자신의 안경이 깨졌다는 것과 집에서 안경을 다시 보내줄 때까지 글쓰기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하자 교장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당연한 일이라며 맞장구를 쳐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목이 매는 것을 꼭 삼키면서 다리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쓰며 교장선생님을 다시 불렀지만 다음과 같이 발화를 완성하지 못하고 만다.

- But, sir ... (원서:61)
『그렇지만, 교장 선생님 ...』 (민음사:88)

“그런데 선생님…….” (문예출판사:98)
 “그런데, 교장 선생님.” (시공사:102)

〈표10〉 사례4의 원문 분석

<p>분석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 : 어린 초등학생, 청자: 교장선생님 · 사회적 거리감(D) : 거리감 큼 · 청자의 힘 (P) : 화자보다 아주 큼 · 화자의 부담감(R) : 아주 강함 ⇒ W의 크기 : 매우 크거나 크다고 봄 · 맥락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자는 방문목적인 체벌을 가한 선생님을 고발해야 함 2)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힘들 3) 말하고는 싶지만 두려워 교장을 불렀지만 말을 잊지 못함 4) 교장선생님을 자기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 공손해야 함 ∴ 화자는 극존칭 호칭어 sir 사용 : 청자에게 존경과 공손 표현
<p>공손 표현 여부</p>	<p>극존칭 호칭어 sir 사용과 맥락 상 청자에게 공손을 표현</p>
<p>인물 파악</p>	<p>교장선생님께 공손히 대하면서도 권위에 억눌려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심하여 눈치를 보며 우물대는 불쌍한 모습과 태도의 어린 디털러스를 상상할 수 있음</p>

〈표11〉 사례4의 번역본들 분석

	민음사, 문예출판사	시공사
<p>화자와 청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 관계 : 차이가 많음 · 사회적 관계 : 교장선생님과 어린 초등학생 · 힘 관계 : 청자가 훨씬 더 큼 · 맥락 : 화자는 교장선생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고해야 함 	
<p>번역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r: 경어법의 상대높임 대우체 접미사 ‘-님’을 붙여 호칭어로 번역 · 원문의 “...”: 화자의 성격과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옮김 ∴ 호칭어를 호칭어로 번역+경어법 적용+맥락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문의 “...”: 번역문에서 생략 (∴ 권위에 눌려 말을 제대로 못하고 소심하게 행동하는 함축적 의미해석의 가능성을 배제) ∴ 호칭어를 호칭어로 번역+경어법 적용+맥락 무시

공손 표현 여부	원문의 공손 표현을 구현	
인물 파악	원문과 비슷한 인물 파악 제공	원문과 달리 끊고 맺고를 분명히 하면서 자신의 말을 다하는 딱 부러지는 성격의 소유자인 어린 디덜러스의 성격과 태도를 상상

<사례5>

집안의 몰락으로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던 주인공 디덜러스는 혼자만의 독서를 즐기며 낭만적 몽상의 세계로 도피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초라한 주변 생활에 좌절하고 그에 대한 반발심도 키우게 되는데, 그런 성향은 중학교에 입학해서도 여전히 계속된다. 사춘기를 맞아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 눈을 뜨게 된 디덜러스는 이성으로 향한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흥등가를 찾아가 처음으로 성경험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이내 성경험에 대한 깊은 죄의식에 시달리며 생활하던 중 어느 날 자신이 다니는 제수이트파 학교의 연례행사인 사흘간의 피정에 참가하여 사제 신부의 웅변적인 무시무시한 지옥의 설교를 듣고 공포에 떨다 마침내 개심을 작정하고 자신이 다니는 성당이 아닌 어느 조그만 낯선 성당을 찾아가 신부에게 고해를 하게 된다. 다음은 신부에게 간음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청소년 디덜러스가 신부의 질문에 대답하던 중 나이를 묻는 신부의 질문에 대답하는 발화이다.

- Sixteen, father. (원서:130)
- 『열여섯입니다, 신부님』 (민음사:223)
- “열여섯입니다, 신부님.” (문예출판사:220)
- “열여섯입니다, 신부님.” (시공사:265)

〈표12〉 사례5의 원문 분석

<p>분석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 : 청소년 학생, 청자: 신부님 · 사회적 거리감(D) : 거리감 큼 (:: 낮은 성당의 신부) · 청자의 힘 (P) : 화자보다 아주 큼 (:: 구원 결정권을 가짐) · 화자의 부담감(R) : 아주 강함 (:: 구원받아야 함) ⇒ W의 크기 : 매우 크거나 크다고 봄 · 맥락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 고해하러 신부를 찾음 2) 분위기를 엄숙하며 거짓이 없어야 함 3) 구원을 받기 위해 화자는 최대한 자신을 낮추어야 함 4) 목적달성을 위해 화자는 최대한의 공손과 존경을 표시해야 함 ∴ 화자는 사제에 대한 경칭어 father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존경과 공손을 표현
<p>공손 표현 여부</p>	<p>경칭어 father 사용과 텍스트 맥락으로 볼 때 청자에게 공손을 표현</p>
<p>인물 파악</p>	<p>구원받기 위해 신부의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청자를 존경과 공손으로 대하려는 화자의 모습과 태도를 상상</p>

〈표13〉 사례5의 번역본들 분석

<p style="text-align: center;">민음사, 문예출판사, 시공사</p>	
<p>화자와 청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계 : 청소년학생과 신부님 · 힘 관계 : 청자가 훨씬 더 큼 · 맥락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자는 청자에게 고해를 하여 구원을 받아야 함 2) 구원을 받기 위해 화자는 자신을 낮추고 진실된 마음과 하느님을 대신하는 청자에게 존경과 공손으로 다가가야 함 3) 청자의 질문에 고분고분하고 진실되게 응답함을 보여야 함
<p>번역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어법의 격식체 존대 아주 높임(합쇼체) 사용 · 경칭어 father : 상대높임 대우체 접미사 '-님'을 붙여 '신부님'이라는 호칭어로 번역 ∴ 호칭어를 호칭어로 번역+경어법 적용+맥락 고려
<p>공손 표현 여부</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의 공손 표현을 구현</p>
<p>인물 파악</p>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과 비슷한 결과의 인물 파악을 제공</p>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의 <표14>와 같은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표14> 번역가들이 사용한 번역전략과 그 결과

사용된 번역전략들	공손여부	인물 파악
1. 호칭어 번역 생략 + 경어법 적용 + 맥락 고려	표현함	비슷
2. 호칭어를 호칭어로 번역 + 경어법 적용 + 맥락 고려	표현함	비슷
3. 호칭어를 호칭어로 번역 + 경어법 적용 + 맥락 무시	표현함	다름
4. 호칭어를 서술어적으로 번역 + 경어법 적용 + 맥락 고려	표현함	비슷
5. 호칭어를 서술어적으로 번역 + 경어법 적용 + 맥락 무시	표현함	다름

4. 결론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공손 표현 여부는 대화에 사용된 언어 장치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즉 청자와 화자의 관계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적 맥락 등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화용론적 차원의 문제이다.

영어에서 공손을 표현하는 정해진 문법적 언어장치는 없지만 그래도 공손을 표현하는 언어장치는 존재하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호칭어 사용이다. 하지만 호칭어를 사용한다 해도 공손표현 여부는 발화가 이루어진 상황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공손표현은 보통 공손 기능을 포함한 경어법을 통해 구현된다. 하지만 한국어도 경어법을 적용한다 하여 모두 공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공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영어 원작과 3종의 한국어 번역본을 선정하여, 영어에서 공손을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장치인 호칭어를 사용하여 대화체 문장에 드러난 공손 표현이 번역본에서는 어떤 번역전략을 사용하여 구현되는지 알아보았으며, 그러한 번역전략의 결과가 가져오는 영향, 예를 들면 인물 파악이나 인물들 간의 관계 파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원작에 대한 충실성과 화용론적 차원의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몇 가지 번역전략이 사용됨을 살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호칭어

를 사용하여 드러낸 영어 문장에서의 공손 표현은 한국어에서 그에 상응하는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원문에서 주고자 하는 공손 표현을 번역본에서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유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경어법 때문인데, 번역가가 화자와 청자의 관계나 대화시의 상황 등의 맥락을 고려한 후 한국어 경어법을 적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어법의 존대나 비존대 어법으로 공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 영어에서 사용된 호칭어가 한국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호칭어로 번역된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다시 두 가지 번역전략으로 나뉠 수 있었다. 즉, 하나는 경어법의 적용과 함께 텍스트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어법은 적용했지만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였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원문에서 주고자 하는 공손 표현은 번역본에서도 구현했지만 인물 파악이나 인물들 간의 관계 파악에는 약간 차이를 보였는데,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한 경우는 원문과 비슷한 인물 파악이나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했지만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원문과 약간 다르게 인물을 파악하거나 인물들 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어에서 사용된 호칭어를 한국어에서 호칭어가 아닌 서술어적으로 번역한 경우인데, 이것도 다시 두 가지 번역전략으로 나뉠 수 있었다. 역시 하나는 경어법의 적용과 함께 맥락을 고려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어법은 적용했지만 텍스트의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였다. 이들도 앞에처럼, 두 가지 경우 모두 번역본에서 공손은 표현했지만 인물을 파악하거나 인물들 간의 관계 파악에는 차이를 보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한 경우는 원문과 비슷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원문과는 달리 인물을 파악하거나 인물들 간의 관계 파악에 차이를 가져옴을 살필 수 있었다.

비록 3장의 텍스트 분석이 원작의 호칭어를 사용하여 공손을 표현한 모든 대화체 문장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들 번역가들이 주로 사용한 번역전략과 그에 따른 인물 파악이나 인물들 간의 관계 파악에 미치는 영향은 작품 전체를 통해 위의 분석결과와 비슷한 형태를 가질 거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엮음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박미실 (2008) 「FTA 완화전략에 따른 영어의 공손표현과 불공손표현」, 『영어학연구』 26: 53-70.
- 서정수 (2006) 『국어문법』, 서울: 한세본.
- 손춘섭 (2010) 「현대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 미학』 33: 95-129.
- 신기철, 신용철 공저 (1991) 『새우리말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 신지혜 (2012) 「영어의 공손 표현법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석기 옮김 (2011) 『젊은 예술가의 초상』, 서울: 문예출판사 (Joyce, James (1993)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St. Martin's).
- 이상옥 옮김 (2014) 『젊은 예술가의 초상』, 서울: 민음사 (Joyce, James (1993)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St. Martin's).
- 이원국 (2005) 「영어 공손의 거리: 근접과 격원」, 『새한영어영문학』 47(2): 149-79.
- 이은숙 (2008)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한영 언어 비교 연구: 경어법을 중심으로」, 『한국중원언어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137-56.
- 이정주 (2002)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화행에 나타난 공손표현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복 (2011a) 「한국어 경어법의 주요 기능」, 『우리말글』 52: 1-29.
- 이정복 (2012b) 『한국어 경어법의 기능과 사용 원리』, 서울: 소통.
- 왕한석 외 (2005) 『한국사회와 호칭어』, 서울: 역락.
- 장경렬 옮김 (2012) 『젊은 예술가의 초상』, 서울: 시공사 (Joyce, James (1993)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St. Martin's).
- 정호정 (2001) 「공손어법의 언어문화특수성과 번역」, 『통번역학연구』 5: 169-92.
- 허상희 (2009) 「한국어 공손법에 관련된 제문제들」, 『한민족어문학』 54: 197-221.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Routledge.

- Brown, Roger & Maguerite Ford (1961) 'Address in American English',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454-62.
- Brown, P. & S.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P.
- Gove, Philip Babcock et al, (1981)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unabridged*, Springfield, Mass.: Merriam-Webster.
- Joyce, James (1993)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St. Martin's.
- Leech, Geoffrey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New York: Longman.
- Stevenson, Angus, (2010),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Oxford: Oxford UP.
- Lakoff, Robin (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 of the nin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292-305.
- Poussaint, Alvin (1967) 'A Negro psychiatrist explains the Negro psyche', *New York Times Magazine*, August 20: 52.

[Abstract]

**Translation Strategy for Polite Expression:
Focusing on Dialogue Sentences Using Address Terms**

Lee, Suk Ja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English literatur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y James Joyce and its three Korean translations are selected to analyse the following with the viewpoints of the fidelity for the original text and the pragmatic level: first, what translation strategies are used to implement politeness of dialogue sentences using address terms in the original; and second, whether the effect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original.

From the contrastive analysis of the texts, it is concluded that politeness is also expressed in Korean translations even without using address terms due to the proper use of the Korean's honorific system, but that the character's personality or attitude and the relation of the characters are a littl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riginal when the situational context of the text is not considered.

▶ Key Words: translation strategy, politeness, polite expression, address terms, dialogue sentences.

이숙자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번역학 전공 박사과정

busyambi@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화번역

논문투고일: 2014년 11월 2일

심사완료일: 2014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4일